

야구

4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KT, ML 출신 데스파이네 영입 쿠에바스·알칸타라 누가 퇴출?



데스파이네

KT 위즈가 10승 외국인 투수와 결별을 결정했다. KT는 올 시즌 가을 야구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보인다.

KT는 11일 빅 리그 경력이 풍부한 쿠바 야구대표팀 출신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32)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30만 달러·연봉 45만 달러, 인센티브 15만 달러 등 최대 90만 달러(약 10억5000만 원)다.

KT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수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다. 올 시즌 월리엄 쿠에바스(13승10패 평균자책점 3.62), 라울 알칸타라(11승11패 평균자책점 4.01) 두 외국인 듀오가 선발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펼쳤다.

그러나 데스파이네를 영입하면서 두 투수 중 한명과 결별하게 됐다. KT는 아직 어떤 투수와 작별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2명 모두 교체하고 또 다른 투수와 계약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우완 투수인 데스파이네는 그동안 꾸준히 KBO리그 팀들의 영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었다. 시속 140km 후반 포심 패스트볼과 싱커, 컷 등 패스트볼 계열에 강점이 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던진다.

2005년부터 쿠바리그에서 9시즌 동안 활약했고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쿠다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했다.

이듬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샌드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했다. 2014년부터 빅리그에서 던졌지만 이후 6시즌 동안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선수생활을 이어왔다. 빅리그 성적은 6시즌 109경기 363이닝 13승 26패 평균자책점 5.11이다.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3경기 등판 기록이 있고 트리플A에서 8승2패 평균자책점 3.47을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두번째 상대 대만의 전력은?

2패 떠안은 대만, 타선 허약·마운드 탄탄

멕시코전 3안타 무득점...0-2 완패
경계대상 천관위·왕야오린 등 견제



대만 천관위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국가대표팀의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2차전 상대인 대만이 타선에서 또 한번 허점을 드러냈다. 대만전 선발을 맡은 김광현(SK 와이번스)의 역투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대만은 11일 일본 지바 조조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개막전에서 3안타의 빈공 끝에 0-2로 패했다. 삼자범퇴 이닝이 5회나 될 정도로 침묵한 타선이 결정타였다. 예선라운드 성적을 안고 싸우는 대회 방식에 따라 대만은 2패, 멕시코는 2승으로 슈퍼라운드 첫날을 마쳤다. 예선라운드를 대만은 B조 2위(2승1패), 멕시코는 A조 1위(3승)로 통과했다.

●3안타 3볼넷 무득점...공공 댁인 대만 타선
대만은 상대 우완 선발 아르투로 레예

스를 의식해 좌타자 6명을 스타팅라인업에 배치했다. 그러나 왼손 테이블레타인인 1번 왕웨이전과 2번 위아둥화부터 각각 4타수 무안타 1삼진, 3타수 무안타 1볼넷 2삼진으로 철저히 봉쇄당했다. 클린업 트리오도 마찬가지로, 좌타자인 3번 왕보봉만 4회 기술적인 타격으로 좌중간안타를 뽑았을 뿐 우타자인 4번 린홍위와 5번 천준시우는 합쳐서 7타수 무안타 1볼넷 3삼진으로 허탈만 컸다.

우완(선발) 장샤오칭~좌완 천관위~우완 왕야오린으로 이어진 마운드는 멕시코 타선을 3안타 2삼진으로 잘 막았

만, 타선이 3회 1사 1·2루와 4회 1사 2루의 선취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불렀다. 0-2로 뒤진 가운데 선두타자 린홍위의 볼넷으로 시작한 7회에는 대타 카드를 연달아 4장이나 쓰고도 만회점에 실패했다. 11안타, 12안루로 1-8 패배를 당한 예선라운드 일본전보다 더 무기력했다.

●만만치 않은 대만 마운드

대만은 한국전 선발로 예상됐던 에이스 장샤오칭을 멕시코전 선발로 당겨쓰며 필승을 노렸지만 5회 로만 솔리스에게 솔로홈런, 6회 에스테반 퀴로스에게 희생플라이로 1점씩을 내주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5.2이닝 3안타 1홈런 3볼넷 8삼진 2삼진으로 제몫을 다한 장샤오칭을 한국으로선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사라졌다. 다만 견제를 과시한 천관위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어야 한다.

천관위는 6회 2사 1·3루 위기서 구원 등판해 좌타자 에프렌 나바로를 1루 땅볼로 낚아 추가실점을 막은 뒤 좌타자 2명

우타자 1명을 상대한 7회는 삼자범퇴(2삼진 포함)로 지휘버렸다. 투구수가 19개에 불과해 12일 한국전에도 언제든 출격할 전망이다. 3번째 투수 왕야오린도 1이닝 무결점 피칭으로 예선라운드 3경기의 팀 평균자책점 2.67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약명 높은 마린스타디움 외야의 강풍은?

해안가에 위치한 마린스타디움의 외야에는 평소 시시각각으로 강풍이 몰아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양팀 외야수들 모두 철저히 대비한 듯 큰 실수가 실책이 없었을 뿐, 이날도 6회말 멕시코 호세 바르가스의 뜬공 때 대만 우익수 왕보봉이 순간적으로 타구의 방향을 놓쳐 멈춰선 가운데 중견수 린저수안이 황급히 달려와 포구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대만-멕시코전은 낮경기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각도가 낮은 마린스타디움의 조명 역시 수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으로선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프로·아마·팬 함께하는 야구축제 열린다

'2회 기장국제야구대축제' 18일 개막
초중고·대학생·사회인선수까지 참가
티볼 체험 등 야구팬 위한 행사 풍성

의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총 2만5000여 명이 함께할 전망이다.

●기장국제야구대회, 올해 우승팀은?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는 메인 프로그램인 기장국제야구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기장국제야구대회는 엘리트 및 사회인 야구인들이 함께 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로 총 6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이 걸려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엘리트 야구선수들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치르는 유일한 대회이며, 직장 생활을 하며 야구를 즐기고 있는 야구동호인들까지 동시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기장국제야구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리틀·초·중·고 각 구별 24개팀, 사회인 총 64개팀(2부 16개팀·3부 32개팀·4부 16개팀)을 선착순 모집했다. 또 엘리트 팀들에게는 최소 3경기를 보장하는 조별리그 방식을 적용한다. 선수 출신 포함 여부에 따라 2부, 3부 및 4부로 각각 나눠 진행되는 예선인 사회인야구대회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말에만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제1회 대회에선 대구고(고등부)와 대동중(중등부), 본리초(초등부), 함안군(리틀부)이 우승을 차지했다. 기장국제야구대회



'제2회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야구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펼쳐진 베이스볼 스킬 캠프에서 어린이들에게 송구를 지도하고 있는 키움 김해성 스포츠동아DB

에 참가하는 팀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야구 투어버스'는 해당 용공사와 야구 등대, 기장8경 등 기장군 내 주요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진정한 야구 축제의 의미 되새길 부대행사

단순한 야구대회가 아닌 진정한 야구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다채롭고 유익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행사가 야구 체험테마공원으로 야구 플레이존(야구VR/야구/티볼 체험), 야구 문화존(야구공 모양, 비누, 방향제 만들기 등), 야구 파워존(전문 스트레칭, 포지션별 자제 등 단순한 관람이

아닌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야구장 콘서트도 펼쳐진다. 23일 오후 5시부터는 공원구장에서 에일리아와 임정정, 신유, 싸군, 플라워티미 등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프로선수들에게 직접 야구기구를 배울 수 있는 엘리트선수 대상 '야구선수 스킬 캠프'를 비롯해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 등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내 유명 프로선수와 함께 23일에는 텀파 베이 레이스에서 올 시즌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최지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sports21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11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13	10	3	10	3	3연승		
2	전차팬드	13	9	4	9	4	1연승		
3	KCC	13	8	5	8	5	1연패		
4	DB	12	7	5	7	5	3연패		
5	인삼공사	12	6	6	6	6	2연승		
6	현대모비스	13	6	7	6	7	3연승		
7	삼성	12	5	7	5	7	1연승		
8	KT	13	5	8	5	8	4연패		
9	오리온	13	4	9	4	9	1연패		
10	LG	14	4	10	4	10	1연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리바운드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23.4	① 허훈	KT	6.9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14.9	
② 라켄	LG	22.3	② 김시래	LG	6.1	② 라켄	LG	11.6	
③ 워니	SK	21.0	③ 이정현	KCC	6.0	③ 워니	SK	10.8	
④ 브라운	인삼공사	19.6	④ 이대성	현대모비스	5.1	④ 힐로웨이	전차팬드	10.2	
⑤ 마테라스	삼성	19.3	⑤ 김선형	SK	4.4	⑤ 윌리엄스	KCC	9.9	
여자프로농구 <11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우리은행	5	4	1	0.800	0	4승		
2	KB스타즈	4	3	1	0.750	0.5	1패		
3	삼성생명	5	3	2	0.600	1	1패		
4	KEB하나	4	2	2	0.500	1.5	1승		
5	신한은행	5	2	3	0.400	2	1승		
6	BNK별	5	0	5	0.000	4	5패		

프로배구 <11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8	6	2	17	679	656	4승		
2	OK저축은행	7	5	2	15	620	600	2패		
3	삼성화재	8	4	4	13	745	748	1패		
4	우리카드	8	5	3	12	718	715	1패		
5	현대캐피탈	7	3	4	8	687	682	1패		
6	한국전력	7	2	5	7	603	646	1승		
7	KB손해보험	7	1	6	6	707	712	6패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GS칼텍스	5	5	0	15	448	357	5승		
2	흥국생명	6	4	2	13	517	433	2승		
3	현대건설	6	4	2	12	470	455	1승		
4	인삼공사	5	2	3	5	461	503	1승		
5	도원공사	6	1	5	4	458	513	4패		
6	IBK기업은행	6	1	5	2	415	508	5패		
해외축구 <11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리버풀	3-1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Utd.	3-1	브라이튼					
울버햄튼	2-1	애스턴빌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빌바오	2-1	레반테	AT마드리드	3-1	에스파뇰					
세비아	2-1	베티스	헤타페	0-0	오사수나					
마요르카	3-1	비야레알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뮌헨글라트바흐	3-1	브레멘	프라이부르크	1-0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2-0	볼프스부르크								

NBA <11일>									
●경기결과									
토론토	113-104	LAL	덴버	100-98	미네소타(연승)				
인디애나	109-102	올랜도	필라델피아	114-106	샬럿				
포틀랜드	124-113	애틀랜타(연승)	밀워키	121-119	오클라호마				
클리블랜드	108-87	뉴욕	피닉스	138-112	브루클린				
아마추어 경기결과 <11일>									
●농구									
●LG 90-86 SK, 삼투 94-73 전자랜드									
●배드민턴									
●2019 최정기 전국 대학 실업 배드민턴연맹전(전남 구례실내체육관) ●남자 일반부 단식 준결승전=한기훈(평생시청) 2-0 최영우(광명시청), 김용현(당진시청) 2-1 홍지훈(수원시청) ●여자 일반부 단식 준결승전=고은별(포천시청) 2-0 백수민(시흥시청), 유수진(영동군청) 2-0 노다연(화성시청) ●남자 일반부 복식 준결승전=유연성, 김영혁(수원시청) 2-0 안세성, 김정호(당진시청), 이상원, 한요셉(충주시청) 2-0 정대인, 신종범(수원시청) ●여자 일반부 복식 준결승전=이정원, 김민지(포천시청) 2-0 정효진, 김유정(영동군청), 박소영, 윤태경(포천시청) 2-0 이승희, 채현희(영동군청) ●일반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김정호(수원시청), 이상현(포천시청) 2-1 한요셉(충주시청), 이승희(영동군청), 김정호(당진시청), 박소영(포천시청) 2-1 김영선(수원시청), 윤태경(포천시청) ●남자 대학부 단식 준결승전=박병관(대구가톨릭) 2-0 한승훈(세한대), 박민국(경희대) 2-0 최대일(경희대) ●여자 대학부 단식 준결승전=유서연(조선대) 2-0 최예진(공주대), 송민지(한국국제대) 2-1 박혜진(목포과학대) ●남자 대학부 복식 준결승전=서강민, 한병수(대구가톨릭) 2-1 김재영, 박주호(백석문화대), 임상준, 손중현(세한대) 2-1 백설암, 최대일(경희대) ●여자 대학부 복식 준결승전=이하나, 김수민(공주대) 2-0 김다솔, 유서연(조선대), 신희주, 박진희(동양대) 2-0 김권영, 최예진(공주대) ●대학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김재영(백석문화대), 박진희(동양대) 2-1 박성우(경희대), 김지원(중앙대), 서강민(대구가톨릭), 김수민(공주대) 2-1 임상준(세한대), 유서연(조선대)									
●펜싱									
●플러레 남자 단체전 결승전=미국 45-31 (한국은메달)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12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KCC	<전주실내>	DB	
오후 7시, SPOTV2			
프로배구 <12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	<대전충무>	도로공사	
오후 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천안외관순>	KB손해보험	
오후 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2일>			
●테니스 ●2019년 제 3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오늘의 토트 <12일>			
●농구토트 매치 50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12(화) 19:00	KCC vs 원주DB	전주실내체육관